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자료집의 구성과 활용

- 이 자료집은 단위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을 적용할 때 교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2016년 5월 29일, 2016년 12월 20일, 2019년 3월 26일, 2025년 1월 31일에 그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2015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2021년에 발간된 교과별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의 구성 내용과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I 장은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북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습니다. I 장은 ‘1. 공교육 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주요 용어 및 적용 예외, 학교와 학부모의 책무,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그리고 Q&A입니다.

II.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

II 장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시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유의 사항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교과마다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록

2025년 1월 31일에 일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과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하였습니다.

C·O·N·T·E·N·T·S

I |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2
가. 목적	2
나. 용어 정의	3
다. 학교의 책무	5
라. 학부모의 책무	7
마. 적용 예외	7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9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9
나. 평가	11
다. 방과후학교	13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

1. 국어	18
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8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23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26
라.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28
2. 영어	32
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32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36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39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42

3. 수학

46

- 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46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50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51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55

4. 사회 / 도덕

58

- 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58
- 나.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61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64
- 라. 평가 시 유의 사항 67
- 마.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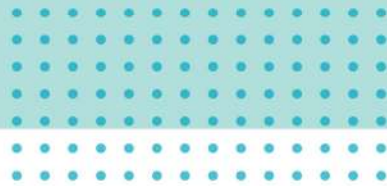
5.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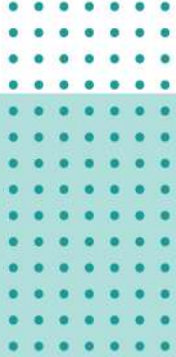
72

- 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72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81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86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92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I |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 가. 목적
- 나. 용어 정의
- 다. 학교의 책무
- 라. 학부모의 책무
- 마. 적용 예외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 나. 평가
- 다. 방과후학교





I |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가. 목적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 제1조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그 근거로서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사교육 중에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놓고 있음. 또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 (2)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은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입학 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 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음.
- (3)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안함.

-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은 특별법으로 선행교육, 선행학습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학교의 교육활동 시기, 학년 편성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들이 있으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 법이 우선한다.



나. 용어 정의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7.20.>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 가. 국가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나. 시·도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다. 학교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해설

- 제2조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사용되는 3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교육관련기관”, “선행 교육”, “선행학습”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관련 기관

-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학교이다. 각 법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예시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선행교육

-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학교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3) 선행학습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다. 학교의 책무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해설

-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교과 재구성, 수업 지도 및 평가 방법 등이 연간 교과지도계획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진로진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 활동 참여만으로도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시·운영해야 한다.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선행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학교 내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여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학교 내 교육과정 기구들의 설치 운영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의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학교장은 학기 중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 편성된 과목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행위,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등의 선행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학교장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 예시〉

연수 주제	연수 내용
1. 공교육정상화의 의미와 목적	가. 공교육정상화 정책과 「공교육정상화법」의 이해 나. 학교 교육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역할과 참여
2. 학교 교육 정책과 학교교육과정의 이해	가. 학교 수업과 평가의 이해 나. 우리 학교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일정 안내 다. 입시 정책과 평가 제도의 이해
3. 학교 교육 활동에의 효과적인 참여 방법	가. 자녀의 바람직한 교우 관계 형성 방안 나.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의 안내

(4)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으로 2016년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39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라. 학부모의 책무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 법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지·지원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구성원이므로, 학교가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정부의 공교육정상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일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마. 적용 예외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6.〉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

-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된다. 그런데 고유한 교육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 교육원’을 말한다.

-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 ‘영재학급’이란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하며, 해당 학교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과 지역의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으로,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 각급학교의 장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경시·경연 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 근거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3)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배제 사항에 포함되었다.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4)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략)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해설

-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¹⁾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학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편성 단계

- 초·중·고등학교는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도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1) 본 자료집에서는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줄여서 '선행교육'으로 제시한 표현을 따름.



-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내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편성한다.
-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한다.

(2) 운영 단계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에 비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을 일치시킨다. 즉, 학교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한다.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진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단, 학교는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한다.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Q&A |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Q. 한 학기 내에서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나. 평가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해설

-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지필·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학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한다. 학교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한다.
-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한다. '각종 교내 대회'는 학교장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 대회 및 시상 계획 없이 단순 상품만 수여하는 대회 및 공모전 등을 모두 포함한다.



Q&A | 교과별(학년별) 평가 운영

Q.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과 진도가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 포함)에 비하여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앞서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에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의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학 단계 이전 학교 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다.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2020. 10. 2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법률 제 16300호(2019.3.26.)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 12. 3.>
 1. 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5.]



해설

•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교육과정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 방과후학교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휴업일²⁾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2028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 적용)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교육감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있었지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교육감에게 지정권한이 이양되었다.

2) 학교 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에는 다음과 같이 휴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 2019. 9. 24.>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Q&A | 방과후학교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연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조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최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과학 등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나요?

A.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산어촌³⁾ 지역 중·고등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는 선행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4호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농산어촌”은 읍·면의 전지역 또는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Ⅱ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국어

1. 국어

- 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국어

1. 국어

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 함양에 필요한 국어 교과 역량 설정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르고자 6가지 국어 교과 역량을 설정하였습니다.

〈표 II-1-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역량

국어 교과 역량	의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디지털·미디어 역량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
자기 성찰·계발 역량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

- 위 국어 교과 역량이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전반에 반영하였습니다.
-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은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의사소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을 통해 폭넓은 국어 경험을 쌓으면서 체계적인 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내용 체계 설정

-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는 국어 활동 및 국어, 문학, 매체의 의미에 대한 인식,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 등에 주목하여 각 영역별로 3~4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하여 내용 체계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영역 및 교과 내, 교과 간 통합을 위한 연결 고리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표 Ⅱ-1-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 예시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나 매체로 표현된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이다. • 독자는 다양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읽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 독자는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읽는다. • 독자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독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읽기 맥락		• 상황 맥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지식·이해	글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화제의 글 • 설명 대상과 주제가 명시적인 글 • 생각이나 감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화제의 글 • 설명 대상과 주제가 명시적인 글 • 주장, 이유, 근거가 명시적인 글 • 생각이나 감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화제나 사회·문화적 화제의 글 •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제시한 글 • 주장이 명시적이고 다양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된 글 • 생각이나 감정이 함축적으로 제시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 •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제시한 글 • 다양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주장을 제시한 글 • 생각과 감정이 함축적이고 복합적으로 제시된 글
	읽기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단어 읽기 • 문장, 짧은 글 소리 내어 읽기 • 알맞게 띄어 읽기 	• 유창하게 읽기		
과정·기능					



<p>내용 확인과 추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중심 내용 확인하기 •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 짐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생각 파악하기 • 내용 요약하기 • 단어의 의미나 내용 예측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 글의 주장이나 주제 파악하기 • 글의 구조 고려하며 내용 요약하기 • 생략된 내용과 함축된 의미 추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 파악하기 • 글의 관점이나 주제 파악하기 •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내용 요약하기 •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 추론하기
<p>평가와 창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과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 글이나 자료의 출처 신뢰성 평가하기 • 필자와 자신의 의견 비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이나 자료의 내용과 표현 평가하기 • 다양한 글이나 자료 읽기를 통해 문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양식의 글·자료의 내용과 표현 평가하기 •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의 타당성 평가하기 • 동일 화제에 대한 주제 통합적 읽기 •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자기 선택적 읽기
<p>점검과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과정과 전략에 대해 점검·조정하기 			
<p>가치·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읽기 동기 • 읽기에 적극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에 대한 성찰 •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



(3) 성취기준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시

-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성취기준’ 외에도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등 해당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성취기준을 설정한 취지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 II-1-3〉 성취기준에 제시된 정보의 사례

성취기준	[10공국1-04-03]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표현을 생성한다.
(가) 성취기준 해설	[10공국1-04-03]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서 문법 요소와 어휘를 통해 실현되는 언어 주체의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고 표현 효과를 평가하여, 문법 요소와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참여자 간의 관계나 장면의 격식성 등 상황 맥락에 따라 달리 쓰인 높임 표현의 효과,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거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글이나 담화에 쓰인 시간 표현의 효과, 신문 기사, 뉴스 보도, 학술문, 토론, 강연 등 특정 글이나 담화 종류에서 두드러지게 쓰이는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효과 등을 언어 주체의 태도 및 인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글이나 담화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생성하도록 한다. 또한, 화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나 입장이 드러나는 어휘,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 사용되어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사고 도구어와 전문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글이나 담화의 맥락이나 종류, 분야에 따른 어휘 선택과 효과를 다루고 이러한 어휘를 활용하여 글이나 담화에 적절한 표현을 생성하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지도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글이나 담화 자료를 활용하여 언어 표현이 글과 담화의 맥락과 분야, 종류 및 언어 주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인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 결과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언어 표현의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언어가 의미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자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전 학교급에서 학습한 내용(‘국어’ 3~4학년의 높임 표현, 5~6학년의 시간 표현, 중학교의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심화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어휘의 선택과 효과를 다룰 때는, 개별 어휘의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어종의 선택과 그에 따른 효과와 가치 등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한다.

- ‘성취기준 해설’은 학교 현장에서 오해 및 혼동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나 강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시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텍스트와 활동 중심의 통합, 성취기준 간 연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학습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 하였습니다.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은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상의 주안점을 통합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성취기준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어 자료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학습량을 적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4)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 강조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개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 및 자기 선택적 교수·학습’,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언어 소양과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진로를 탐색하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다양한 담화, 글과 자료, 작품 등을 주제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주도적으로 생성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교육과정에서보다 강조해서 주목할 만한 항목은 ‘개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 및 자기 선택적 교수·학습’입니다. 미래지향적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 수준,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언어와 문화 배경 등 개인차를 고려하고, 학습자가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자신의 탐구 분야와 주제, 학습 방법이나 학습 소재 등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어과에서 진로연계학기는 이전 학교급에서의 국어 학습 역량을 진단하고 현 학교급에서의 기초적 국어 학습 역량을 함양하여 상위 학교급으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기 이해와 성찰을 위한 국어 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조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과정과 평가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평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평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학습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학습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고 학습 과정에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가 수행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 고등학교 과목 구조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원화

-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을 함양하고, 이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인 일반 선택, 교과별 심화학습 (일반선택 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인 진로 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또는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인 융합 선택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 1과목,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구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 2과목,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융합 선택 과목 3과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순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1)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년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기를 앞당겨 가르치는 경우, 해당 과목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사례 1학기에 '공통국어1', 2학기에 '공통국어2'를 편성하고 1학기에 '공통국어2'의 내용 일부를 가르치는 경우, 1학기에 가르치는 '공통국어2'의 내용은 선행교육에 해당함.

(2) 공통 과목 '공통국어1, 공통국어2'는 국어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통 과목은 학생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공통 과목을 통해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선택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의 교수·학습은 학교, 교사,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위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1)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할 때에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함

-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한 통합형 교수·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이를 과잉 해석하여 아직 배우지 않은 다른 학년이나 과목의 성취 기준을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수업도 반드시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재구성의 방향을 탐색하고 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구성의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통해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과 학생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임의로 변형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 학점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국어2’ 과목에서 ‘국어의 변화’를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중세 국어 문법 내용을 수업할 때, 일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에서 배워야 할 고대 국어 자료와 지식을 가져와 가르치는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의 일치

(1) 교육과정에 맞게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한 후 계획에 따라 실제 수업을 실시해야 함

-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연 2회(4월, 9월)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의 시기와 순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는, 공신력을 갖춘 문서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된 객관적 자료이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 후 공시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례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의 학습 내용이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과목의 학습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서술(예: 적용(심화) 학습, 통합 수업 등)한 후 실제 수업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 등이 선행교육에 해당함. 따라서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 제시된 학습의 순서와 시기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4) 기타

(1)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참고 자료나 보충 자료 등이 성취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함

-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고 심화 학습을 이끌어 주기 위해 다양한 참고 자료나 보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자료 중에는 성취기준과 상관이 없거나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재구성해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례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학습지 등)나 보충 자료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지 않고 자료에 있는 그대로 가르친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2) 수업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성취기준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는지, 선행학습 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수업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집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집에는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선행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부교재의 내용 중 선행학습에 해당하는 요소를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례 '화법과 언어' 수업에서 해당 과목의 수능 연계 문제집을 부교재로 사용하게 되면 성취기준을 벗어난 심화 내용을 가르치거나, 아직 이수하지 않은 '독서와 작문' 과목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할 경우 과목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함.

- 예방 지도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관리와 지원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예방 지도에도 불구하고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서도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면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사례 '공통국어1'의 음운 변동 관련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예방·보충 지도에서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공통국어2'의 한글 맞춤법 원리를 적용하여 음운 변동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교육과정 준수

(1)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어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이었던 ‘국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국어1’과 ‘공통국어2’로 나뉘고, 성취기준 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미이수 도입에 따른 최소성취수준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평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문법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에 있었던 한글 맞춤법 관련 사항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내용이 중학교 ‘국어’로 내려갔음. 그리고 고등학교 ‘공통국어2’에서는 중학교 ‘국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국어생활에서 자주 혼동되는 표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의 조항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공통국어1’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할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2)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함

-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국어과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정보공시 항목에도 포함됩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제에 맞게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서 1학기 ‘공통국어1’의 ‘평가 계획’에 2학기 ‘공통국어2’에 설정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선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령, ‘공통국어1’ 과목에서 음운 변동을 발음과 표기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평가할 때, ‘공통국어2’에서 배워야 할 중세 국어의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까지 다루는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3) 성취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문항 정보표’ 등을 작성해야 함

- ‘성취기준’은 학생의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



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 수립된 '성취기준' 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평가의 준거가 됩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해야 합니다. 성취기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를 진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평가 문항에 맞는 성취기준을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문항 정보표'를 작성했을 경우, 평가 문항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항과 성취기준 불일치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평가 문항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고난도의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행교육 요소를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대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나 모의평가, 수능 기출 문제,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제 등을 활용하여 평가 문항을 설계할 경우,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이 없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1', '공통국어2' 과목의 문법 영역 문항을 출제하면서 난도를 높이기 위해 '화법과 언어' 과목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나 수능 연계 교재 수록 문항을 출제한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2)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준수

(1) 수능 대비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를 지필 평가를 실시로까지 연결하지 않아야 함

- 특히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편제를 벗어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필 평가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례 '화법과 언어' 과목을 편성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독서와 작문', '문학' 등 다른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고 지필 평가에서 '독서와 작문', '문학' 등 다른 과목에 해당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한 경우 법령 위반이 됨.

(2) 지필 평가뿐만 아니라 수행 평가에서도 선행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행 평가 과제를 설계할 때에도 이를 점검해야 함

-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행 평가에서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행 평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취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3) 기타

(1)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선행 출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예시 선행 출제 점검표

점검 항목	예	아니요	비고
1. 학교교육과정 편제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평가 문항이 작성되었습니까?			
2. ‘평가 계획’의 성취기준은 해당 교과와 성취기준이며 명확히 진술되었습니까?			
3. ‘방향정보표’의 성취기준은 해당 교과와 성취기준이며 명확히 진술되었습니까?			
4. 각각의 문항과 성취기준의 연결은 정확하고 적절합니까?			
5. 문항 중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다룬 문항은 없습니까?			
:			

(2) 선행교육 예방을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함

- ‘교과협의회’는 교과별 수업·평가 계획(지필 및 수행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협의록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교과별 수업·평가 계획과 성적 처리 방법, 결과 활용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에서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발견되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라.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하지 않도록 함

- ‘각종 교내 대회’는 학교장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 대회 및 시상 계획 없이 단순 상품만 수여하는 대회 및 공모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각종 교내 대회 중 교과 관련 대회에서 학교 교육과정(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 교육에 해당합니다.

사례 고등학교에서 1학기에 국어 교과 관련 교내 대회인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1학년 참가 학생들에게 2학기에 이수하게 될 ‘공통국어2’나 다음 학년에 선택하게 될 ‘화법과 언어’의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해야 함

-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의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참가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 관련 대회인 '독서논술대회'는 국어과 선택 과목 '독서와 작문'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 후인 학년이 아닌 최저 학년에 맞추어 출제하여야 함.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Ⅱ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영어

2. 영어

- 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영어

2. 영어

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 강조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영어 학습자의 역량을 기존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을 확장·체계화하여 ‘영어 의사소통 역량’으로 명명합니다.
-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모두 포함하며, 가장 널리 통용되는 소통의 수단인 영어로 제시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며,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림 II-2-1] 영어과 역량 및 영역 구성



(2) 핵심 역량을 구체화한 교과 목표 제시

- 영어과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것을 총괄 목표로 설정하고, 여섯 가지 핵심 역량(협력적 소통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영어과의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세부 교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고등학교 ‘공통영어’ 과목의 목표와 연관되어 제시된 핵심 역량입니다.

첫째,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대하여 협력적 태도로 자신의 참여 목적과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한다. → 협력적 소통 역량
 둘째, 영어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영어 학습을 수행하고 스스로 평가한다. → 자기관리 역량
 셋째,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감, 배려와 관용,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갖추고 영어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공동체 역량
 넷째,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로 전달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정보, 기술, 경험 등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창의적 사고 역량
 다섯째,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자료와 작품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한다. → 심미적 감성 역량
 여섯째,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매체의 디지털 지식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검색, 수집, 이해, 분석, 평가, 활용한다. → 지식정보처리역량

(3)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구분된 내용 체계

-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역, 핵심 아이디어, 범주별 내용 요소로 구성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기존의 네 가지 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심의 분류에서 벗어나, 언어의 사회적 목적을 반영하여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해’ 영역에서는 담화와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영어 지식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한편, ‘표현’ 영역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말, 글, 시청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느낌, 생각, 의견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신장합니다.
-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결합하여 영어 사용자 간 상호 작용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대화, 토론, 문자 교환 등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표 II-2-1〉 고등학교의 ‘공통영어 1’의 이해 영역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말이나 글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은 소통과 새로운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바탕이 된다. 말이나 글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듣기 또는 읽기 전략의 활용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 활동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적 태도를 길러 준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단어나 어구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의 문장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 1,800단어 이내 [별표 4] 고등학교 권장 언어 형식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말이나 글 정보 전달·교환 목적의 말이나 글 의견 전달·교환이나 주장 목적의 말이나 글 [별표 1] 소재 일상생활 및 기본적 지식이나 정보 등의 친숙한 일반적 주제 우리 문화와 타 문화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 예술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정보 파악하기 주제나 요지 파악하기 분위기나 심정 및 의도 추론하기 일이나 사건의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표현의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말이나 글의 전개 방식 및 구조 파악하기 적절한 듣기 또는 읽기 전략 적용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관점과 의견에 대한 포용적 태도 목적과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 듣거나 읽는 태도 타인의 의견이나 느낌을 공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태도

- ‘핵심 아이디어’는 영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함양해야 하는 영어 이해 및 표현 영역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일반화된 내용입니다. 이전 교육과정의 영역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재정리하고, 영어과 역량의 개념을 반영하여 영역별 핵심어를 추출하였으며, 내용 요소의 각 범주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각 영역의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첫째, ‘지식·이해’는 언어와 맥락으로 구분됩니다. ‘언어’에서는 어휘,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담화 및 글의 유형 등을 다루며, ‘맥락’에서는 영어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문화적 내용을 과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정·기능’에서는 이해 및 표현 영역에서



학습자가 언어 요소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상호 작용을 경험하고 영어를 내재화하는 과정과, 영어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과목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언어 사용 전략 및 매체 활용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치·태도’에서는 가치와 태도를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학생이 궁극적으로 함양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의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영어과 성취기준 도출 및 성취기준 해설/적용 시 고려사항 제시

- 내용 체계표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조합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합니다.
- 다음은 고등학교 ‘공통영어 1’ 이해 영역의 성취기준입니다.

[10공영1-01-01] 말이나 글에 포함된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10공영1-01-02] 말이나 글의 주제나 요지를 파악한다.
 [10공영1-01-03] 말이나 글의 분위기나 화자나 인물의 심정 및 의도 등을 추론한다.
 [10공영1-01-04] 말이나 글에 나타난 일이나 사건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10공영1-01-05] 말이나 글에 포함된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한다.
 [10공영1-01-06] 말이나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한다.
 [10공영1-01-07] 말이나 글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적용한다.
 [10공영1-01-08] 말이나 글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포용적인 태도로 분석한다.

- ‘공통영어 1’의 이해 영역에서는 말이나 글의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논리적 관계와 구조를 파악하며,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등 목적과 상황에 맞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제시된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공영1-01-05] 말이나 글에 포함된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한다.’는 화자나 필자가 사용하는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상황, 맥락,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습자는 문학적이거나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언어 사용의 묘미를 느끼고, 명시적이고 직설적인 표현과 비교하여 함축적 표현의 전달 효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 각 영역의 성취기준에 대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통영어 1’ 이해 영역의 성취기준 적용 시, 다양한 유형의 듣기·읽기 자료와 전략을 활용하여 중심 아이디어와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방법 제시

-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과 방법’에서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방법을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도한다’와 같은 전반적인 교수·학습의 방향과 함께,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평가를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신의 영어 학습 과정과 성과를 성찰하도록 설계한다’와 같은 평가의 전반적인 방향과 함께, ‘영어 말하기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음성 챗봇, 화상 콘퍼런스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쌍방향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철자 오류나 언어 형식 오류를 수정하는 프로그램, 번역기, 코퍼스 활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쓰기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수·학습’과 ‘평가’ 영역 모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예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순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1)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편성·운영함

- 선행교육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3년 동안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사례 영어교과와 다른 경우 선행교육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단위 학교별로 수립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담당 교사(학급담당 교사와 진로담당 교사 등)가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택 과목의 과목별 성격과 과목 내 위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담당 교사가 입시 준비를 위해 기존에 수립된 교육과정 편성과 상이하게 운영할 경우 선행교육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2) 영어교과 보통교과의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함

-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어교과의



공통 과목인 ‘공통영어1, 공통영어2’를 편성하여 학생들이 선택 과목 이수 전에 이수하도록 합니다.

- ‘기본영어1’과 ‘기본영어2’는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영어1’과 ‘공통영어2’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어과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상호 점검 및 조정 과정이 필요함.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과목 선택이 복잡하므로 교육과정 편성 시 영어과 교사들의 교과협의회, 교육과정 전담부서와의 협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사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과목 선택 시 교과목 위계에 벗어난 과목 선택 등의 선행교육 위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므로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학교 연합형, 거점 학교형 선택 운영)에 대해 숙지함으로써 선행교육 위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2) 위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1) 영어과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간의 위계는 I 과 II로 표시하므로 I 과 II로 구분된 과목의 경우 I 을 먼저 이수하고 II 를 이수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다만, 학생의 학습 능력이나 선수 학습 정도 등을 고려하여 I 을 이수하지 않고도 II 를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과목별 교육과정 허용 어휘와 어휘 수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과목별로 허용 어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에 따라 허용되는 어휘와 어휘 수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II-2-2〉 고등학교 영어교과의 과목별 어휘 수

2022 개정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어휘 수		
	과목명	어휘 수
공통	기본영어1, 2	1,600단어 이내
	공통영어1, 2	1,800단어 이내
일반 선택	영어 I	2,000단어 이내
	영어 독해와 작문	2,200단어 이내
	영어II	2,500단어 이내
진로 선택	직무 영어	2,000단어 이내
	영어 발표와 토론	2,500단어 이내
	심화 영어	2,800단어 이내
	영미 문학 읽기	3,000단어 이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3,500단어 이내
융합 선택	실생활 영어 회화	1,500단어 이내
	미디어 영어	2,000단어 이내
	세계 문화와 영어	2,200단어 이내

※ 중학교(1~3학년군)의 허용 어휘 수는 1,500단어 이내이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어휘 수는 600단어 이내임.

※ 기본영어와 공통영어의 어휘 수는 각각 1과 2의 합본 상태의 어휘 수를 말함.

사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어휘와 어휘 수를 고려하여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허용 어휘 수가 많은 선택과목을 ‘공통(기본)영어1, 2’ 또는 ‘영어 I’보다 먼저 편성하지 않도록 함.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의 일치

(1)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학기 단위를 넘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일치하도록 운영함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행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또는 학년을 앞서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어교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하는 과목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영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한 후, 공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실제 수업 운영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사례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한 학기 내에서 해당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 사례가 아님. 그러나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앞당겨 이전 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운영계획을 정보공시에 반영해야 함.

사례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제 부여, 지도, 평가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됨. 고등학교 입학 이전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영어 과제를 부여하거나, 영어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고등학교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됨.

사례 교사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등)에 앞선 교육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도해서는 안 됨.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되는 영어과 교육과정(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포함) 범위 안에서 심화 학습을 실시하거나, 학생의 자발적 동기와 요청(예: 수업 시간 또는 쉬는 시간의 질문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행 요소를 포함하는 설명은 할 수 있음.

4) 기타

(1) 영어과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맞게 영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정보공시 한 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맞게 수업해야 합니다. 이때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사례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중심의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강조함.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 교육과정 준수

(1)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함

-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은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영어과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수업의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공시 하는 것은 공교육 신뢰성 강화로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준수

(1) 성취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취기준별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문항 정보표’ 등을 작성해야 함

- 영어과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별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하는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여 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학기 초에 성취기준별 성취수준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분석하여 학기 단위 성취수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취수준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해야 하며, 성취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의 ‘영어 발표와 토론’ 과목이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은 발표와 토론 영역으로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별 성취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서 ‘영어 발표와 토론’ 과목 평가 시 독해 지문을 출제하거나 어법 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이 과목의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사례 중학교에서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의 성취기준 중 지나치게 일부 성취기준만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거나 어휘나 문법 문항만을 과도하게 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사례 학년 초에 수립하여 공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실제 학기 중에 실시하는 영어 평가 문항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출제하고 있다고 ‘문항 정보표’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문항은 해당 성취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성취기준을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성취기준과 맞지 않는 ‘문항 정보표’를 작성했을 경우, 평가 문항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문항과 성취기준 불일치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학습할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학습할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배가 되며, 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영어 수업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비하여 빠르게 이루어져서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배가 되므로 반드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정된 내용을 정보공시에 재공시하여야 합니다.
- 지필 평가(정기고사)의 문항 출제 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상의 수업과 평가의 범위를 넘어서 출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수행 평가에서 ‘미래 직업에 대한 에세이 쓰기’를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통영어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를 넘어서는 예문과 지침을 제공한 경우 선행 교육에 해당함.

3) 기타

(1) 선행교육 예방을 위해 문항 출제를 관리하고 자체 점검을 권장함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2014.3.11.) 이후,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을 근절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현장 교사들은 평가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교사 연수와 교육과정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시에 따라 계획된 학년별 교육과정과 평가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학기마다 점검하고, 지필 및 수행 평가 이후에는 평가 문항과 학습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과협의회를 통해 선행 교육 위배 여부를 점검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평가 문항 출제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예방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각 대회 및 교내 대회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함

- 교외 대회 참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기나 학년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회를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대회를 학년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내 대회를 위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영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을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에 맞추어 문항을 출제해야 합니다.
- 다양한 맥락에서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학기나 학년 수준을 넘어서는 영어 지식이나 기술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영어 연극 대회,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허용된 어휘 수준과 범위를 초과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는 선행교육 위배 사례에 해당함. 또한, 학교 차원에서 영어 독서 콘테스트나 영어 골든벨 대회 등을 개최할 때 전교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다루어질 경우, 선행교육 위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사례 교내대회를 계획하여 실행할 때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특히, 참가 학년이 두 개 이상이거나 전교생일 경우 고학년의 내용을 출제하면 안 됨. 대회 주관 시, 출전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

사례 다양한 실제상황 속에서의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참여 학생의 학기나 학년 수준을 넘는 영어 지식이나 기술이 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인공지능 또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대회에서도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사례 이해 및 표현 영역에서 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교내대회를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으나, 각 기능이 포함된 단원 및 학년 간 위계가 반영 되도록 유의해야 함.

(2) 선행교육 위배 방지를 위한 영어과 방과후학교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영어과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동일 학기 또는 동일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고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 학습 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과에서 학년 구분 없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 사례에 해당됨.

사례 선행학습 예방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계획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상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 또는 활용해서는 안 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단위 학교 교과별 협의회 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사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 및 영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되 현재 학기 또는 학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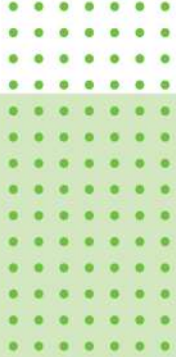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도구가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는 개별 학습 데이터와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정해야 함.

사례 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한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함.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서 「***」 과목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음. 단, 선택 과목의 위계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되는 선택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함.

(3)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프로그램은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을 앞서 편성·운영이 가능함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운영하는 영어 교과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은 진로·적성 교육 또는 대학 입학 준비 등 교육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현재 학기 또는 학년보다 앞선 내용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Ⅱ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수학

3. 수학

- 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수학

3. 수학

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⁴⁾

(1)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 방향 모색

-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의 5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설정하고 이들 역량을 교육과정 전반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구성하고, 이들을 성취기준 개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표 II-3-1〉〈공통수학1〉의 내용 체계 (일부만 제시함)

핵심 아이디어		• 식에 대한 사칙연산과 인수분해는 복잡한 다항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되며, 방정식과 부등식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된다.
범주	구분	내용 요소
지식·이해	다항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항식의 연산 • 나머지정리 • 인수분해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의 개념, 원리, 법칙이나 자신의 수학적 사고와 전략을 설명하기 • 수학적 절차를 수행하고 계산하기 •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해결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과의 연결을 통한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의 유용성 인식 •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끈기 있게 도전하는 태도 • 체계적으로 사고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태도

4) ‘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학과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적용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 〈수학과 교육과정(제2022-33호 [별책 8])〉,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정책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2022)〉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수학 교과 역량을 평가할 때의 고려 사항을 포함한 평가 방법을 ‘교수·학습 및 평가’에 제시하였습니다.

〈표 II-3-2〉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일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과목)

수학 교과 역량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문제해결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를 학생에게 제시한다.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추론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게 한다.
의사소통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표현끼리 변환하게 한다.
연결	영역 간에 관련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게 한다.
정보처리	실생활 및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며 수학적으로 처리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표 II-3-3〉 수학 교과 역량 평가 시 고려 사항

수학 교과 역량	수학 교과 역량 평가 시 고려 사항
문제해결	문제해결 역량의 평가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문제 상황에 적절히 활용하는지, 주어진 조건과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전략을 탐색하여 해결하는지, 문제해결 과정을 돌아보며 절차에 따라 타당하게 결과를 얻어내고 이를 반성하는지,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문제해결에 참여하는지,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끈기 있게 도전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추론	추론 역량의 평가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지, 논리적으로 절차를 수행하는지, 수학적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는지, 관찰에 근거하여 추측하고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 추측의 근거를 제시하는지, 타당한 정당화를 하는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지, 체계적으로 사고하려는 성향이 있는지, 수학적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갖는지 등을 고려한다.
의사소통	의사소통 역량의 평가는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적절한 수학적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수학적 표현 간에 변환을 할 수 있는지, 수학적 아이디어나 수학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는지, 수학적 표현의 편리함을 인식하는지, 타인을 배려하고 의견을 존중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연결	연결 역량의 평가는 영역이나 학년(군) 내용 사이에서 개념, 원리, 법칙을 적절하게 관련지어 이해하는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지, 수학을 실생활이나 타 교과 지식, 기능, 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생활이나 타 교과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수학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지,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정보처리	정보처리 역량의 평가는 자료와 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하고 변환하고 정리하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이 적절한지, 교구나 공학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태도를 갖는지 등을 고려한다.



(2) 미래 지향적 수학 학습 내용 재구조화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미래 산업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 지능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수학1>에 ‘행렬’, <기하>에 ‘공간벡터’, <이산 수학>에 ‘알고리즘’을 도입하였습니다.
- 실생활 자료 중심의 통계 교육을 위해 중학교 <수학>의 1학년에서는 ‘대푯값’을 다루고 3학년에서는 ‘상자그림’을 도입하며,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는 ‘모비율의 추정’을 편성하였습니다.
-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 내용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 핵심 아이디어를 향한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때, 핵심 아이디어는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관통하는 수학 내용의 본질 또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학 학습 과정에서 전이가 높은 내용을 담은 문장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표 II-3-4〉 수학과 일반 선택 과목의 핵심 아이디어

과목	핵심 아이디어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급격히 증감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삼각함수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 수열은 나열된 대상의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되며,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된다.
미적분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국소적 성질을 이해하는 도구이며, 함수의 연속은 함수의 극한을 통해 설명된다. • 미분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함수의 그래프와 이동하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탐구에 활용된다. • 부정적분은 미분과 역관계에 있고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며, 정적분은 도형의 넓이, 물체의 이동 거리 등을 구하는 데 활용된다.
확률과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활용된다. • 확률의 성질과 정리를 활용하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중요한 도구이다. • 예측하고자 하는 집단의 속성을 표본으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은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3)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제시

-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성취기준의 설정 취지 및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는 해당 영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수·학습 및 평가상의 주안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표 II-3-5〉 과목별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의 일부(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만 제시함)

교과목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수학 (중학교)	[9수02-22] 이차함수 $y = f(x)$ 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은 x 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만 다룬다.	- 증명을 할 때, '가정', '결론' 용어는 다루지 않는다.
공통수학1	[10공수1-04-02] 행렬의 연산에서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및 곱셈을 다루고, 행과 열의 수가 각각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렬의 곱셈을 할 수 있게 한다.	-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거나 판별식을 활용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공통수학2	[10공수2-03-04] 유리식은 유리함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히 다루고, 유리함수는 $y = \frac{ax+b}{cx+d}$ 의 기본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간단한 문제만 다룬다.	- 좌표축의 평행이동은 다루지 않는다.
기본수학1	[10기수1-02-08] 한 개의 절댓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만 다룬다.	- 판별식을 활용하는 복잡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기본수학2	[10기수2-02-03] 집합의 연산은 두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의 개념을 다루고, 집합의 연산에 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은 다루지 않는다.	- '도형의 방정식' 영역에서는 용어와 기호로 '대칭이동, $f(x, y) = 0$ '을 다룬다.
대수	[12대수03-05]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sum_{k=1}^n k$, $\sum_{k=1}^n k^2$, $\sum_{k=1}^n k^3$ 과 수열의 합이 간단한 것만 다룬다.	- 등비수열과 그 합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연금의 일시 지급이나 대출금 상환 등과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미적분 I	[12미적 I -02-10]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는 직선 운동에 한하여 다룬다.	- 도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확률과 통계	[12확통03-05] 표본추출이 모집단의 성질을 예측하는 기본조건임을 이해하게 한다. 표본의 추출방법을 임의추출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예로 간단히 다룬다.	- 항이 세 개 이상인 다항정리에 관한 문제와 허수단위 i 가 포함된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수학과 교수·학습 및 평가를 실행할 때 다루는 수준과 범위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순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1)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순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 이수 이전에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은 공통 과목인 <공통수학1>, <공통수학2>를 사전에 학습한 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수학1>, <공통수학2>를 각각 <기본수학1>, <기본수학2>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관련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적분 I>, <미적분 II>와 같이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2) 위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1) 여러 과목을 동시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더라도 교과 내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해야 함

-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대수>에서 지수 → 지수함수와 같이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과학 계열 진로 선택 과목(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 내용 간 위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의 일치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는 일치해야 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학년 초 수립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과 실제 운영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교육과정 편성과 다른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계획은 일치하나 실제로는 다른 교과 혹은 과목의 내용을 지도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계획은 일치하나 평가 문항에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포함함.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 교육과정 준수

(1) 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해야 함

-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8])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교과서나 지도서의 내용도 교육과정 내의 내용인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과서의 특별 코너 및 읽기 자료 등에 실려 있는 내용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BS를 포함한 시중의 교재나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중학교 <수학>의 도형과 측정 영역에서 다루는 정다면체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특별 코너에 실린 준정다면체를 출제하여 평가함.
- <공통수학2>에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으로 '집합의 개념이나 집합의 포함관계는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 간단히 평가한다.'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세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확률과 통계>에서 교과서의 특별 코너에 실린 기하학적 확률을 출제하여 평가함.
- 교과서 출판사에서 홈페이지 또는 CD로 제공하는 교사용 문제 자료에 수록된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2)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성취기준 해설'을 숙지하여 성취기준에 따른 적절한 내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숙지하고, 내용 수준 및 범위를 준수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중학교 <수학>의 변화와 관계 영역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함.
(예) x 에 대한 이차방정식 $x^2 + ax - 3 = 0$ 의 두 근의 합이 -2 일 때, 이차방정식 $x^2 + ax - 3 = 0$ 을 푸시오.
- 중학교 <수학>의 변화와 관계 영역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이차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다룰



수 있는 x 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9수02-22] 이차함수 $y = f(x)$ 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은 x 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만 다룬다.

(예) $-2 \leq x \leq 2$ 일 때, 이차함수 $y = x^2 - 2x + 4$ 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시오.

- <공통수학1>의 방정식과 부등식 영역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다룰 수 있는 연립이차방정식의 경우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10공수1-02-08] 미지수가 2개인 연립이차방정식은 일차식과 이차식이 각각 한 개씩 주어진 경우, 두 이차식 중 한 이차식이 간단히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다룬다.

(예) 연립방정식 $\begin{cases} x^2 + 2xy - 2y^2 = 4 \\ xy + y^2 = 2 \end{cases}$ 의 해를 구하시오.

- <기하>의 이차곡선 영역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평행이동한 이차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루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함.

(예) 포물선 $y^2 = 4x$ 를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3) 교육과정 편성 상 학습한 내용의 범위에서만 출제해야 함

- 교육과정 편성 상 아직 학습하지 않은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출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미적분Ⅱ>를 편성하기 전 <미적분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적분Ⅰ>의 함수의 극한의 평가 문항으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미적분Ⅱ>를 편성하기 전 <기하>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차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에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4) 교육과정 밖의 내용은 정규 수업 시간에 지도하였더라도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 정규 수업 시간에 지도한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 밖의 내용은 출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항 내에 단서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도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x]$ 와 같은 가우스 함수, f_n 과 같이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열의 기호 등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는 용어와 기호를 문항 내의 조건에서 정의한 뒤 이를 활용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a^3 + b^3 + c^3 - 3abc = (a+b+c)(a^2 + b^2 + c^2 - ab - bc - ca)$ 와 같이 <공통수학1>에서 다루지 않는 인수분해 공식을 문항 내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출제하여 평가함.
- <공통수학1>에서 3×3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을 지도한 뒤 관련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미적분 I>의 수업 시간에 <미적분II>에서 학습하는 역함수의 미분법의 개념을 좌표평면 상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 뒤 출제하여 평가함.

(5) 이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용어나 내용 중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대수>에서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의 용어만 언급하지 않고 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함.
(예) $10 < x < 100$ 이고 $\log \sqrt{x}$ 와 $\log x^2$ 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x 의 값을 구하시오.
- <대수>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관련하여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계차수열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함.
- <확률과 통계>에서 원순열의 용어만 사용하지 않고 원순열의 개념을 활용하여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함.

2)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준수

(1) 평가 문항은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일치해야 함

- 학교 시험의 출제 범위는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교육과정 상에는 <공통수학2>로 편성하고 실제로 <공통수학2>의 내용을 지도하였지만 평가 문항에 지난 학기에 편성하였던 <공통수학1>에서 미처 다 평가하지 못한 내용을 출제하거나, 복습을 위한 목적으로 <공통수학1>의 내용을 출제함. 교육과정 편성과 가르친 내용은 일치하지만 가르친 내용과 평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 교육과정 상에는 <확률과 통계>로 편성하고 <확률과 통계> 이외의 내용을 지도하고 그 내용을 평가함. 가르친 내용과 평가한 내용은 일치하지만 교육과정 편성과 일치하지 않음.



(2)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상 학습한 내용의 범위에서만 출제해야 함

- 어떤 두 교과가 같은 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상 다른 교과에서 아직 학습하지 않은 내용은 출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대수>, <미적분 I>을 동시에 편성한 경우 교육과정 편성 상의 문제는 없으나, <대수>에서 수열의 합의 기호 \sum 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분 I>에서 \sum 기호를 이용한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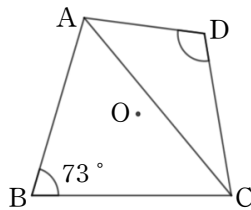
(1)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더라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해야 함

- 학생이 배운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였지만 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에 대하여 선행 학습을 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은 출제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사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중학교 <수학>의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에 대한 평가에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예) 그림에서 점 O 는 두 삼각형 ABC 와 ACD 의 외심이다. $\angle B = 73^\circ$ 일 때, $\angle D$ 의 크기를 구하시오.



- <공통수학2>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하는 중복조합 등의 개념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해결되도록 출제하여 평가함.

(예) 집합 $X = \{1, 2, 3\}$ 에 대하여 $f(1) \leq f(2) \leq f(3)$ 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 \rightarrow X$ 의 개수를 구하시오.

- <미적분 I>에서 식을 전개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미적분 II>의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예) $\int_1^2 (2x+3)(x^2+3x)^2 dx$ 의 값을 구하시오.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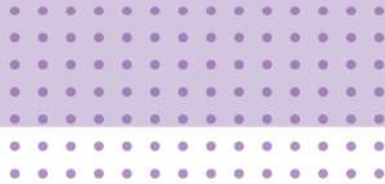
(1)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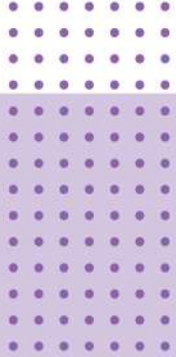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수학 교과에서 운영하는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는 해당 학기의 과목에 대한 기초 과정, 심화 과정, 문제해결 강좌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과목과 그 학습 내용에 대한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학교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단, 2028년 2월 29일 까지 한시적 적용).

(2) 교내 수학 관련 대회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 수학 교과와 관련된 교내 대회로는 수학 경시 대회, 수학 용어 말하기 대회, 수리 NIE 대회, 통계 활용 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내 대회에서는 다루는 내용도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 경시와 같은 대회의 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험의 범위를 공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사회/도덕

4. 사회 / 도덕

- 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라. 평가 시 유의 사항
- 마.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사회/도덕

4. 사회 / 도덕

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1)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 학교급 간 계열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단순 중복의 소지가 있는 내용 요소를 삭제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과목 및 주제 간 중첩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기준 72개에서 49개로 학습량이 감축되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성취기준 수는 유지하되, 학습 요소를 감축하여 질적 적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경우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기본학점이 5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됨으로써 현행 5~8개의 영역(주제) 수를 4~5개로 조정하고, 현행 19~28개의 성취기준 수를 12~16개로 조정하였습니다.

(2) 초·중등 내용 간 계열성 제고

- 초·중·고 학교급별로 학습자의 성장 발달 정도와 사회적 경험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내용이 배치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심화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 학교급 간 학습 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성이 있는 내용은 통합하거나 차별화함으로써 학년에 따라 내용이 심화 및 확장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및 위기, 감염병 확산, 기상 이변과 기후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자치, 주민 자치, 선거의 역할, 정당과 유권자의 역할 등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하여 생태시민으로서 기후변화 현황과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태도를 강화하고 신설 과목(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과 관련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과 정보 매체, 지리 정보와 매체 활용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과목 개설

- 공통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중학교에서는 사회 및 역사,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1, 통합사회2 및 한국사1, 한국사2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으로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 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5)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 구성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그리고 선택 과목은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사회1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 인간, 사회, 환경의 특성 및 관련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윤리적 실천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는 생태시민의 태도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 다양성 존중의 태도는 서로 다른 문화권과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통합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관점 • 시간적 관점 • 공간적 관점 • 사회적 관점 • 윤리적 관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의 의미 • 행복의 조건
	자연 환경과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 자연관 • 환경문제 • 생태시민
	문화와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권 • 문화 변동 •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 • 다문화 사회
	생활 공간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와 도시화 • 교통·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 • 생활공간과 생활양식 • 지역사회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 주제를 나-지역-국가-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 탐구 주제의 역사적 배경 조사하기 •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치 간의 관계 탐구하기 • 갈등 상황에서 가치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예측 및 평가하기 • 탐구 주제를 그림이나 지도, 도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표현하기 • 탐구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하기 • 탐구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 의견 및 주장을 자료 및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타당성 평가하기 •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합의 도출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관심 • 갈등 해결을 위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 • 타인의 감정 이해 및 타인의 가치와 태도 존중 •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 배려 •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공동선의 실천 • 생태·평화적 관점에서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태도 •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쟁점에 관한 관심 •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 및 위기 해결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6) 교수·학습 및 평가와의 유기적 연계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결합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역(단원)별로 추가 설명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취기준과 관련된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취기준’은 특정 주제나 사건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공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수·학습 및 평가상의 주안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교수·학습 방향’ 부분에서는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의 강조점(학생 맞춤형 수업, 자기 주도적 학습, 디지털 기반 학습, 다양한 학습자 고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부분에서는 교수·학습의 원칙과 중점에 따라 교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고등학교 과목의 경우 고교학점제에서 미이수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 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평가의 방향’ 부분에서는 교과 목표의 달성 및 촉진을 위한 평가의 강조점(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 방향, 과정 중심 평가, 개별 맞춤형 피드백 강화, 디지털 기반 평가,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원칙과 중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는 평가의 방향에 제시된 평가의 원칙과 중점에 따라 교과 성격 및 특성에 비추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평가 방법 및 평가 시 유의점, 디지털·AI 도구를 활용한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목의 경우 고교학점제에 따른 미이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진단을 포함하여 학습 과정을 중시 하는 평가 및 평가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1)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를 통한 도덕성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함

- 도덕 현상에 관한 탐구와 내면의 도덕성에 관한 성찰, 일상의 실천이라는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역량, 생태전환 역량, 디지털 윤리 역량 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과목이 개설됨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도덕’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바른 생활과에서 형성된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 타인, 사회·공동체,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탐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



덕목과 규범을 이해하고 도덕적 기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형성된 가치·덕목 및 규범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기능 및 실천 능력을 심화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탐구와 삶의 이야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배려적인 인간관계와 정의로운 공동체 및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도덕성과 역량을 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현대사회와 윤리’, 진로 선택 과목으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융합 선택 과목으로 ‘윤리문제 탐구’가 개설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적 관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사회’의 목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주제 중심 탐구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21세기 한국 시민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인류 고전을 통해 탐구하고 성찰하며, 학습자 중심의 탐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덕 현상의 탐구와 윤리적 성찰의 과정을 심화함으로써 도덕적 탐구 및 성찰 능력, 윤리적 실천 역량을 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핵심 가치와 함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함

- 도덕과에서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와 함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도덕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일관되게 추구하도록 하여 도덕적 삶으로 이끈다. • 자아에 대한 탐구와 성찰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도덕 공부의 기초이다.
범주	학년군 중학교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일까? • 행복이란 무엇일까? •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 직업적 삶에서 어떤 윤리가 필요할까?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를 탐색하고 도덕적 앎을 자아와 통합하기 • 도덕적 인격이 갖추어야 할 특성 파악하기 • 행복의 의미를 검토하고 삶의 목적과 행복의 관계 규정하기 • 윤리이론을 도덕 문제에 적용하여 도덕 판단 도출하기 • 삶의 유한함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삶의 의미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의 원인을 성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모색하기 •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윤리의 필요성 정당화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 • 도덕적 인격의 특성을 내면화하는 자세 •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 판단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태도 • 삶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 자세 • 건강한 마음을 가꾸는 자세 • 직업적 양심을 키워가는 자세

(4) 교수·학습 및 평가와의 유기적 연계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와 같은 내용 요소가 반영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역별로 추가 설명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성취기준'은 영역별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취기준과 관련된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성취기준 해설'은 해당 성취기준의 설정 취지 및 의미, 학습 의도 등을 설명한 것이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영역 고유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별히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수·학습 및 평가의 주안점, 총론의 주요 사항과 해당 영역의 학습과의 연계 등을 설명한 것입니다.
- 교수·학습 및 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교수·학습'과 '평가'가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교수·학습'은 '교수·학습의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학습의 방향'에서는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원칙과 중점을 제시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교수·학습의 방향에 따라 교과(목)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는 '평가의 방향'과 '평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의 방향'에서는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원칙과 중점을 제시하였고, '평가 방법'에서는 평가의 방향에 따라 교과(목)의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나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순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1) 중학교의 경우 사회/도덕은 3년간 연속적으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

- 중학교 사회과는 '지리 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역사 일반', '지역사', '한국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을 3년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측면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 중학교 도덕과는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라는 네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교과서는 각 영역이 도덕1과 도덕2로 나뉘어 계열적으로 심화 되도록 구성되며, 각 영역을 3년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측면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사례 도덕1을 모두 가르치기 이전에 도덕2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가르치는 경우

(2)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선행학습에 해당합니다.

사례 1학기에 한국사1, 2학기에 한국사2를 편성하고 1학기에 한국사2의 내용 일부를 가르치는 경우

사례 1학기에 통합사회1, 2학기에 통합사회2를 편성하고 1학기에 통합사회2의 내용 일부를 가르치는 경우

(3)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먼저 이수하고 수능 출제 과목인 공통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례 일반 선택 과목(현대사회와 윤리,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을 1학년 과목으로 편성하고 공통 과목(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을 2, 3학년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례 진로 선택 과목(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등), 융합 선택 과목(윤리 문제 탐구,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등)을 1학기에 편성하고 2학기에 공통 과목(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위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1)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수립과 수정 등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교과 구성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작성·수정해야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학기 초 작성된 평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합니다. 수정 시에는 학년별·학기별 교과 담당 교사들의 교차 점검, 교과 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동교과 교사들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에 탑재되는 학교별 공시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을 연도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례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례 학기 초 수립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 수정 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학교별 공시 정보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의 일치

(1)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과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 일치해야 함

- 실제로 편성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 시간에 해당 과목의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편성된 과목 대신 수능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례 일반 선택 과목(세계사)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공통 과목(한국사1, 한국사2)을 가르치는 경우

사례 진로 선택 과목(인문학과 윤리, 도시의 미래 탐구, 법과 사회 등)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공통 과목(통합사회1, 통합사회2)을 가르치는 경우

사례 융합 선택 과목(윤리문제 탐구,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금융과 경제생활 등)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공통 과목(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을 가르치는 경우

4) 기타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별 성격 및 내용 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새롭게 제시된 과목의 성격 및 내용 체계를 이해해야 하며, 기존 과목이 유지된 경우에도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달라지고 일반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례** 초등학교 사회의 경우 기존의 3학년 ‘고장’, 4학년 ‘지역’으로 학습 대상 공간의 범위를 확장해 가는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 - 우리 지역 -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량 조정과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 ‘헌법의 의미와 역할’, ‘정치적 의미와 사례’ 관련 내용이 삭제됨.
- 사례** 중학교 도덕①, 도덕②는 교과목명은 유지되었으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여러 변화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함.
- 사례** 중학교 사회의 경우 지리 영역에서 주제 중심의 계통지리적 내용이 한국과 세계의 지역을 다루는 지역지리 체제로 변환되었으며, 세계지리를 먼저 학습한 후 한국지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이 구성됨.
- 사례**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한국사1, 한국사2로 구분되며 선사 시대부터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까지는 한국사1,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는 한국사2에서 다루고 있음.
- 사례**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통합사회1, 통합사회2로 구분되며, 기존의 3개 영역, 9개 핵심 개념에서 10개 영역(각 5개 영역)으로 내용 체계가 변경됨.
- 사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고, ‘인간과 윤리사상’이 삭제되고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은 ‘동양 윤리사상’과 ‘한국 윤리사상’으로 분리됨.
- 사례**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인 한국지리에 과정·기능을 강조하여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고, 여행지리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변경됨.
- 사례** 고등학교 정치, 법과 사회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으로 통합되어 있던 과목이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되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의 내용 중 민주주의의 이념과 모델, 민주 정치의 발전은 정치 과목에서, 법치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은 법과 사회 과목에서 다루고 있음.
- 사례** 고등학교 경제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고, ‘경제생활과 금융’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신설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에서 다루고 있음.
- 사례** 선택 과목 체계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융합 선택 과목에 윤리문제 탐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이 신설됨.



라. 평가 시 유의 사항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한다.

1) 교육과정 준수

(1)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함

- 평가 계획의 준거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교수·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통합 사회의 경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통합사회1과 통합사회2로 나뉘고, 기존의 9개 핵심 개념도 10개 영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학기 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여기에 맞는 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업과 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의 책임 교육을 강조하여 최소학업성취수준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례 평가 문항에 맞는 성취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문항 정보표를 작성했을 경우, 평가 문항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항과 성취기준 불일치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수행평가에서 선행교육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함

-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때 선행 출제 문항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외 공동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수강에서도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학생은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소속 학교에 편성되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을 공동 교육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음. 이때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강 희망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수강하도록 안내해야 함.

- 사회·도덕과는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 평가, 구술 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평가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사설 강의 및 학원에서 학교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직접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경우 선행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어기고 편법적으로 수능 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 교육 평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윤리와 사상' 과목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통합사회'를 진행하고, 평가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임.

예시 선행 출제 문항 점검표

점검 항목	예	아니요	비고
1.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작성하였습니까?			
2. 교과 교수·학습 운영 계획보다 앞선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3. 교과 교수·학습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에 불일치하는 평가 문항이 있습니까?			
4. 평가 문항은 모두 교수·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습니까?			
5. 평가 문항의 성취기준과 문항정보표의 성취기준이 일치합니까?			
6. 문항정보표 및 채점기준안의 성취기준이 교과 운영 계획에 나타난 성취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루지고 있습니까?			

2)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준수

(1) 실제 수업한 학습 내용과 평가가 일치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과 교수·학습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업한 내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전 계획에 따른 평가는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선행 교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기별로 수립된 교과 교수·학습 운영 계획보다 앞선 다음 학기 내용을 학습하거나 평가할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 수업을 재구성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 관련 성취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목 수업에서 실제 가르친 내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 문항에서 다룰 경우에도 선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는 2학기에 설정된 내용이 1학기 계획에 포함된 경우



사례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실제 실시 기간이 평가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사례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 시험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에 나오는 심화 개념(거시경제 등)이 출제되는 경우

3) 기타

(1) 평가 계획 수립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별 평가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의록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에는 지필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기 초 교과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교과 교수·학습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평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제시된 학기 구분을 확인하여 1학기 평가에서 2학기에 배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해 계획서를 수정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수정 사항을 학교 정보공시 담당자와 공유하여 제공시켜야 합니다.

사례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나누어 지도하는 방식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 학습하게 될 학습 순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함.

마. 교내 대회 및 방과후학교 운영 시 유의 사항

(1) 각종 교내 대회 참가자를 모집할 때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유념해야 함

- 교내 대회(학교장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뿐만 아니라 단순 상품만 수여하는 대회 및 공모전 포함)에서 교과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경우, 참가 학년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행교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학년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에 맞추어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골든벨, 역사 골든벨 등을 운영할 때 2, 3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사전 학습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2) 교내 대회 실시 시기를 결정할 때 관련 교과목의 진도를 함께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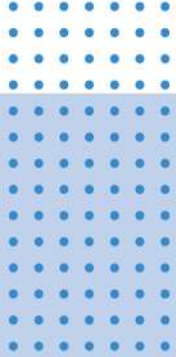
- 교내 대회 실시 시점의 출제 범위가 해당 과목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학기 단위이기 때문에 교내 대회 등의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1학기에 실시되는 교내 대회 등에서 2학기에 다루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월에 실시되는 한국사 경시 대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상 2학기에 다루기로 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3)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 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최저 학년 수준에 맞추어야 하며,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사례 학교에서 3학년 이수 과목 관련 방과후학교를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Ⅱ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과학

5. 과학

- 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과학

5. 과학

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⁵⁾

(1)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을 개발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계승하여 역량 함양을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음.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총체적인 능력인 역량 함양을 강조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생태 소양, 민주 시민의식, 디지털 소양을 갖추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영역을 창출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인 양성을 목표로 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개인과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참여·실천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학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과학 교과 안팎의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습 내용을 조직함.
-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과학 분야별로 주요 과학 개념과 원리의 일상생활 적용과 통합·융합 교육을 체현할 수 있도록 과학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종합하여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함.
 -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운동과 에너지(물리학), 물질(화학), 생명(생명과학), 지구와 우주(지구과학)에 추가하여 ‘과학과 사회’ 영역을 신설하고, 과학 교과 내·교과 간 내용과 연계 지도가 가능한 통합 단원으로 3~4학년군에 ‘감염병과 건강한 생활’과 ‘기후변화와 우리 생활’, 5~6학년군에 ‘자원과 에너지’와 ‘과학과 나의 진로’ 단원을 도입함.
 - 중학교의 ‘과학과 사회’ 통합 영역에서는 1학년예 ‘과학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 단원을 도입하여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3학년예 ‘재해·재난과 안전’ 단원을 도입하여

5) 본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2022).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정책연구”에 제시된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재해·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과학적 분석과 통합적 접근을, ‘과학과 나의 미래’ 단원을 도입하여 진로연계교육과 관련한 과학과 진로 체험 등을 강화함.

-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 통합과학을 계승하면서, 과학 분야들을 관통하는 과학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융·복합적 과학 지식·이해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추어 학기 단위 이수 가능하도록 ‘통합과학1, 2’의 2개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을 고등학교 ‘통합과학1’의 내용 체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표 II-5-1〉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1 내용 체계

		구분	
		범주	내용 요소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몇 가지 기본량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표준과 단위는 일상생활과 산업기술에서 중요하다. 우주 초기 원소 형성,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 별의 진화 등 모든 천문 현상은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에는 규칙성이 있으며, 원소의 결합으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구성된다. 자연계에서 물체의 운동 변화는 역학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며,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활용된다. 지구계는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등 여러 하위 권역들로 구성되며, 지구계 구성 권역들이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 발생한다. 생명체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을 통해 생명 현상이 유지된다. 	
지식·이해	과학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 	
	물질과 규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소 형성 별의 진화 원소의 주기성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물질의 전기적 성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판구조론과 지각 변동 중력장 내의 운동 충격량과 운동량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물질대사 유전자와 단백질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현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기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탐구 설계하기 다양한 도구를 수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정보를 조사·수집·해석하기 수학적 사고와 모형을 활용하여 통합 및 융합 과학 관련 현상 설명하기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추론하기 결론을 도출하고 자연 현상 및 융복합 문제 상황에 적용·설명하기 과학적 주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적 지식 활용하기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의 심미적 가치 • 과학 유용성 • 자연과 과학에 대한 감수성 • 과학 창의성 • 과학 활동의 윤리성 • 과학 문제해결에 대한 개방성 • 안전·지속가능 사회에 기여 • 과학 문화 향유
-------	---

(2)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

-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며, 과학과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모든 학생을 위한 과학 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과학과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 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 내용으로 명료화하여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함.
- 과학과 '성취기준'은 이전 교육과정까지 지식·이해에 국한하여 진술되었지만,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를 포함한 세 가지 범주, 즉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정합하는 방식으로 진술됨.
 - 각 영역별 성취기준의 경우 성취기준과 탐구 활동,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으로 구성함. 특히, 탐구 활동 목록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예시의 성격으로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필수 탐구 활동만을 제시함.
 -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유사한 성취기준을 통합하고, 교육과정 대강화 취지에 맞추어 성취기준 진술 문장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그로 인해 내용 전달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부연 설명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제시 방식을 고등학교 '통합과학1'의 '(1) 과학의 기초' 영역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1) 과학의 기초

[10통과1-01-01] 자연을 시간과 공간에서 기술할 수 있음을 알고, 길이와 시간 측정의 현대적 방법과 다양한 규모의 측정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10통과1-01-02] 과학 탐구에서 중요한 기본량의 의미를 알고,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데 단위가 가지는 의미와 적용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10통과1-01-03] 과학 탐구에서 측정과 어림의 의미를 알고,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논증할 수 있다.

[10통과1-01-04]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측정·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함을 알고, 이러한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정보 통신에 활용하여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을 인식한다.

<탐구 활동>

-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물체의 크기에 따른 차이점 분석하기
-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탐색하기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기본량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가) 성취기준 해설

- [10통과1-01-01] 원자와 우주를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규모(scale)의 의미와 필요성을 소개하고,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인간의 경험 범위를 얼마나 확장했는지를 설명한다.

...(생략)...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이 영역은 고등학교 과학 과목의 출발점으로서 과학의 본질에 관해서 탐구 대상과 방법론 측면에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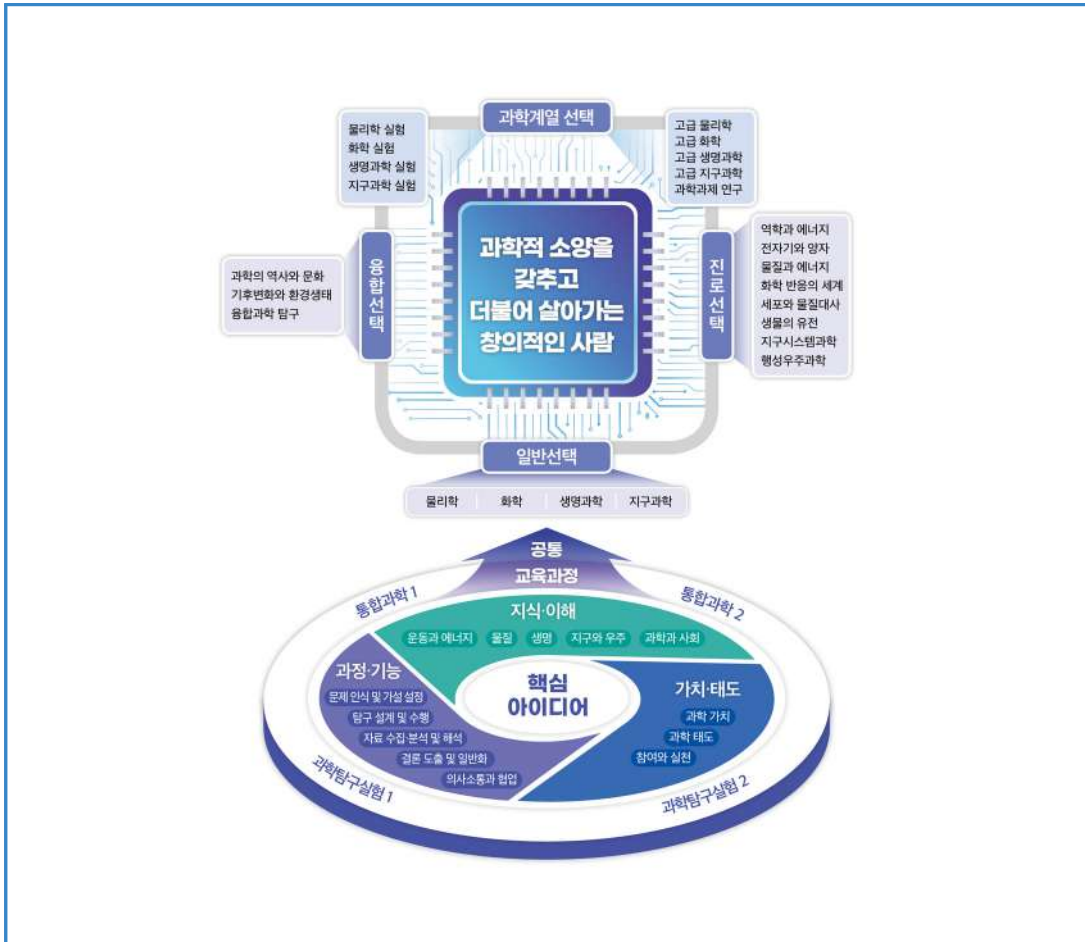
...(생략)...

[그림 II-5-1] 고등학교 '통합과학1' '(1) 과학의 기초' 영역 성취기준



(3) 선택중심 교육과정 강화

-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학습자 진로·적성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과학 교육이 가능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및 과학계열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함.
- 일반 선택 과목은 과학의 학문영역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융합 선택 과목은 과학 안팎의 주제를 융합하여 체형·응용하는 내용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통 과목을 토대로 진로·적성에 따라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과학계열 진로·융합 선택 과목까지 개발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과학과 선택 교육과정을 강화함.
- 과학과 공통 과목은 ‘통합과학1’과 ‘통합과학2’ 및 ‘과학탐구실험1’과 ‘과학탐구실험2’로 구성되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함.
- 과학과 일반 선택 과목은 이공계 진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초 과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및 ‘지구과학’의 4개 과목으로 구성함.
- 과학과 융합 선택 과목은 인문사회, 예체능 및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과학 교양 과목으로,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및 ‘융합과학 탐구’의 3개 과목으로 구성함.
- 과학과 진로 선택 과목은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을 위한 과목으로, 물리학 분야의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화학 분야의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반응의 세계’, 생명과학 분야의 ‘세포와 물질대사’와 ‘생물의 유전’, 지구과학 분야의 ‘지구시스템과학’과 ‘행성우주과학’ 등 8개의 과목으로 구성함.
- 과학계열 선택 과목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던 전문교과 I 과목을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하여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음. 융합 선택 과목은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및 ‘지구과학 실험’의 4개 과목으로, 그리고 과학계열 진로 선택 과목은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및 ‘과학과제 연구’의 5개 과목으로 구성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를 새로 도입함. ‘과학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는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작성함.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는 초·중학교 내용에 추가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들 간의 위계, 이수 경로 제한 등을 제시함.



(4) 탐구·실험 교육의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 탐구 역량 강화

- 자연 현상에 대한 융복합적 사고력 함양과 학습 흥미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탐구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영역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차원을 상호보완적으로 함양함으로써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시함.
 - 과학과 지식·이해는 과학과 영역별로 학생이 알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학년군별로 제시함.
 - 과학과 과정·기능은 기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과 기능(skills)을 개선한 것으로, 학생들이 과학 학습을 통해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과학과 탐구 기능과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을 근간으로 과학 분야(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함.

- 과학 탐구·실험을 통해 과학과 가치·태도를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과학과 가치·태도를 과학 가치(과학의 심미적 가치, 감수성 등), 과학 태도(과학 창의성, 유용성, 윤리성, 개방성 등), 참여와 실천(과학문화 향유, 안전·지속가능 사회에 기여 등)으로 초·중·고에 일관되게 공통으로 제시함.
- 디지털 도구 및 지능정보기술(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는 ‘융합과학 탐구’ 선택 과목 신설, 지능형 과학실과 같은 미래지향적 과학 교육 환경 활용 등을 통해 과학 탐구 수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과학탐구를 위한 과목뿐만 아니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모두에서 디지털·AI 소양 함양에 적합한 단원을 선정하여 디지털 탐구 도구, A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탐구 활동을 제시함.
 -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과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과학 탐구와 실험·실습 중심의 수업을 강화함.
 - 모든 학생이 시공간을 초월한 탐구·실험을 통해 과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탐구·실험 지원방안을 마련함.
 - 학습자가 행위주체(agency)로서 수업을 통해 과학과 탐구 과정과 사고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지식 생산을 포함한 과정·기능 및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함양하도록 함.
 -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 탐구·실험 교육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통합과학1, 2’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5-2〉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1, 2'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의 양태 변화(예시)
(한국과학창의재단(2022)에서 내용 발췌 후 재구성)

구분	영역	내용요소	변화양태	성취기준 변화내용
통합 과학1	과학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와 시간의 측정 방법과 사례, 기본량과 단위의 의미와 적용 사례, 측정과 어림의 의미, 및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도입 정보와 신호, 디지털 정보와 정보통신 등을 도입
	물질과 규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소 생성 별의 진화 	변형	우주 초기의 원소(생성) 및 태양계에서 원소 생성을 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변형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및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 관련 성취기준을 병합
	시스템과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판구조론과 지각 변동 	변형	지구 시스템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 상호 작용을 연계하여 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포의 구조와 소기관 물질대사 유전자와 단백질 	변형	세포막의 기능, 세포 소기관, 물질대사, 효소 관련 성취기준을 병합
	통합 과학2	변화와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이 자연선택과 진화 생물다양성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화와 환원 			변형	지구와 생명 시스템 및 일상생활에서 산화와 환원의 역할과 특성 관련 성취기준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성과 염기성 중화 반응 			변형	대표적인 산·염기 물질의 특징, 중화 반응 사례 관련 성취기준을 통합
환경과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변형	기존 열효율 관련 성취기준을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으로 내용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 	병합	발전기, 전기에너지 관련 성취기준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전환과 효율 	변형
과학과 미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로봇 감염병과 병원체 과학기술과 윤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을 사례로 한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탐구,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내용을 도입 과학기술과 미래 사회, 사회과학적 쟁점(SSI)·과학 윤리 관련 내용을 도입



- ※ 선행교육 예방 점검 업무와 관련된 중요 판단 근거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과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선행교육 위반 및 혼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해당 교육과정 문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www.nc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기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 내용을 80% 선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내용의 중복을 없애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의 삭제, 이동, 변형, 신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2022).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순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1) 각 교과(군)의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에 앞서 편성·운영해야 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목명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 I, II’, ‘생명과학 I, II’와 같이 로마자 I, II를 사용해 위계를 구분했지만,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1’, ‘통합과학2’와 같이 숫자 1, 2를 사용해 위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과(군)의 공통 과목 간, 선택 과목 간에 위계는 없지만,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운영 지침에서는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사이의 위계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에 앞서 공통 과목들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1학년 과정에 ‘통합과학1, 2’ 및 ‘과학탐구실험1, 2’ 과목들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사례 • 1학년 과정에 여러 교과의 과목들을 다양하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학기 당 교과 이수 학점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공통 과목을 2학년 과정에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통합과학1’ 또는 ‘통합과학2’와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일부 과목을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데, 교육 과정 성취기준은 각 교과(군)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간의 내용 연계성을 바탕으로 설계 되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운영 지침에서도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1학년 과정에서 공통 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 통합과학이 결정됨에 따라 ‘통합과학1, 2’를 2학년 또는 3학년 과정에 편성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에도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및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교육 과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편성·운영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2) 위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1) 성취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학 개념에 대한 과목별(학년별) 경계가 모호하여 상위 개념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함

- 과학 교과와 특성은 동일한 과학 개념과 용어라 할지라도 내용 수준에 있어 연계성 즉,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상위 개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은 중학교 1~3학년 ‘과학’과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1, 2’ 및 ‘과학탐구실험1, 2’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 개념의 연계성에 따른 위계가 있으므로 과목별(학년별) 내용 수준에 맞는 개념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례 중학교 과학 성취기준의 “[9과19-02]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함을 분석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통합과학1’의 “[10통과1-03-03] 중력의 작용으로 인한 지구 표면과 지구 주위의 다양한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를 비교하면 동일하게 중력에 의한 운동 개념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과학의 경우 연직 방향의 낙하만을 다루게 되며 고등학교 ‘통합과학1’은 연직 방향 및 수평 방향의 자유 낙하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중력에 의한 운동의 수준을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의 일치

(1)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은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행해야 함

-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은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계획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은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및 적용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례 학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따라서 교과 교사는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에 일치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이렇게 수립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은 학기별로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따르지 않고 계획보다 앞서서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2) 편성된 학교교육과정과 실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서로 일치해야 함

-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한 교과목과 실제 운영하는 교과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 추가하여 다른 과목을 실제 수업에서 운영하거나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을 먼저 학습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례** • 학교교육과정에 공통 과목인 ‘통합과학1, 2’를 각각 4학점으로 편성하고 실제로 ‘통합과학1, 2’는 3시간만 운영하거나, ‘통합과학1, 2’와 ‘과학탐구실험1, 2’를 묶어서 학기당 4~5학점으로 편성하고 ‘과학탐구실험1, 2’를 ‘통합과학1, 2’의 탐구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3~4학점으로 운영한 후, 1학점을 관련 단원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내용 또는 관련 심화 내용으로 운영하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 3학년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을 편성·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해 ‘통합과학1, 2’를 반복하여 수업하는 경우 선행학습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에 따라 운영하지 않거나, 수업계획 및 정보 공시와 다르게 운영될 경우 학점이수 인정기준인 학업성취율 40%이상 기준 미도달 및 실제 교수·학습 내용과 평가 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기타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단위학교의 특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지만,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총 10학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공통 과목인 ‘통합과학1, 2’의 기본 학점은 각각 4학점으로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고, ‘과학탐구실험1, 2’의 기본 학점은 각각 1학점으로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과학1, 2’ 과목을 기본 학점에서 1학점씩 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졸업 시까지 과학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인 10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축소 및 삭제된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함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었으나 현 교육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삭제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대학별 고사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축소 및 삭제된 내용은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었더라도,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병합, 변형 및 삭제된 개념과 내용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1, 2’ 과목의 성취기준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과목의 성취기준과 대비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취기준 “[10통과01-03]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와 “[10통과01-04]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와,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10통과1-02-03]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도출하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로 병합되었고, “[10통과09-02]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의 원거리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전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는 삭제되었음. 그리고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학 I’에서 다루던 파동의 요소와 전반사 등은 신설되는 진로 선택 과목인 ‘역학과 에너지’로, 전자기파 스펙트럼과 관련된 내용은 ‘전자기와 양자’로 이동하였음. 이렇듯,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었지만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수의 성취기준이 병합되면서 일부 요소가 축소 및 삭제되었기 때문에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함.

(3) ‘통합과학1, 2’의 경우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습 내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합과학1, 2’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통합과학1, 2’ 과목 편성·운영에 있어서 목적성을 가진 다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통합과학1, 2’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있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 수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대비하여 각 성취기준의 개념 및 내용 요소를 연관된 일반 선택 또는 진로 선택 과목 수준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 ‘통합과학1, 2’ 과목 수업을 각 영역별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전공 교사들이 나누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 수준의 내용을 다루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 고사 대비 목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 및 과학계열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통합과학1’의 성취기준 “[10통과1-03-04] 상호작용이 없을 때 물체가 가속되지 않음을 알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충돌 관련 안전장치와 스포츠에 적용할 수 있다.”에서 충격량을 다루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물리학’의 “[12물리01-03] 작용과 반작용 관계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고, 스포츠, 교통수단, 발사체 등에 적용할 수 있다.”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음. ‘통합과학1’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 교육과정 준수

(1)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영역별 성취기준 및 해설,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교수·학습의 방향 및 방법, 평가의 방향 및 방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영역에서 과학 개념과 원리에 대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영역별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진술한 것입니다.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할 때는 먼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성취기준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이수하고 있는 과목의 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고 평가하거나,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 **출제 문항이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성취기준과 평가 내용의 일치를 위해 후속 과목에 편성된 성취기준을 가져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례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과학2 과목의 성취기준 “[10통과2-01-03]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광합성, 화석 연료 사용, 철의 제련 등에서 공통점을 찾아 산화와 환원을 이해하고, 생활 주변의 다양한 변화를 산화와 환원의 특징과 규칙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 해설에는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와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하되, 산화수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제시하고 있음. 산화수의 개념은 진로 선택 과목인 화학 반응의 세계의 성취기준 [12반응02-01]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통합과학2에서 산화수를 가르치고, 이와 관련된 평가 문항을 제시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단순히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재 수강 과목의 성취기준에서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순히 EBS 교재의 내용을 근거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EBS 교재 등 부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때 반드시 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에너지의 출입이라는 동일한 학습 내용을 고등학교의 공통 과목인 통합과학2와 진로 선택 과목인 물질과 에너지에서 연계하여 다루고 있음. 이때 통합과학2 과목에서는 열화학 반응식과 엔탈피를 다루지 않으며, 물질과 에너지 과목에서 열화학 반응식과 엔탈피를 다루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과목에서 다루는 열화학 반응식과 엔탈피에 대한 내용을 통합과학2의



평가에 가져와 추가하거나 평가하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대비 축소, 삭제된 내용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량을 적정화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및 과학 계열 선택 과목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일부 학습 내용이 축소, 삭제되었거나 다른 선택 과목에 편성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 문항 제작 시 해당 과목의 성취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군의 성취기준 중 [9과20-03]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라고 제시되어 있던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성취기준 중 중학교 1~3학년 군의 [9과20-03]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호르몬의 종류는 성장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티록신 정도만 언급하고”라고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해당 호르몬 외에 다른 호르몬에 대한 평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성취기준을 충분히 비교하고 현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에서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3)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성취기준 내용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수업 활동의 기준이며, 교수·학습 활동의 가이드 라인입니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하여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취기준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내용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내용에 치우쳐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통합과학1’ 과목의 성취기준 중 “[10통과1-02-06]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응용하여 일상생활과 첨단기술에서 다양한 소재로 활용됨을 인식한다.”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수준을 벗어난 첨단기술 및 소재의 원리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등 부수적인 내용에 치우쳐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면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룬 부수적인 내용을 평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내용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내용이 출제되지 않는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4) 평가 문항의 발문, 도표, 그래프 및 선택지 등의 내용이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대부분의 과학 교과서도 수정·보완되어 학습 내용의 축소, 삭제, 이동, 변형 및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 및 교재의 경우 심화 학습 등을 위해 그래프, 그림 등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게 수정이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된 경우가 있어 자칫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발문, 도표, 그래프 및 선택지 등의 내용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지, 과목별 내용이 연계되는 단원은 위계상 상위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지, 과학 개념의 위계상 상위 개념을 묻는 문항, 또는 상위 수준의 개념 및 풀이 방법을 이용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항이 출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학년별 내용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례 • ‘통합과학1’ 과목에서 화학 결합과 관련된 성취기준인 “[10통과1-02-03]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도출하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를 평가하기 위해 전자껍질 모형이 아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림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루이스 전자점식은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의 성취기준 “[12화학02-03] 원자와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고, 전자쌍 반발 이론을 근거로 분자의 구조를 추론하여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에서 다루는 개념이므로 ‘통합과학1’에서 평가 문항의 그림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 중학교 1~3학년 군의 ‘별과 우주’ 단원의 성취기준 “[9과15-01] 연주시차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별의 등급과 밝기의 관계 및 표면 온도와 색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의 평가에서 ‘별의 거리’를 직접 구하기 위한 상위 학년의 풀이 방법인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를 응용하여 제시하는 문항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별의 표면 온도는 별의 색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수준으로만 다뤄야 하는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제공하고 별의 거리를 계산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 역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2)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준수

(1)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하면 **“지필 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 과정 운영에 따라 편성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앞선 진도의 내용을 학습 시키거나 앞선 진도의 내용으로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의 변경을 원한다면 교과(학년) 협의회에서 수업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공시의 절차를 거쳐야 변경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초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세울 때 학교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과 교사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운영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평가 내용과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학기초 시간차를 두고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두 계획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 단, 학기 단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안에서 지도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문항 정보표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나타난 성취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문항 정보표는 학기 초에 계획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의 성취기준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과목의 성취기준이 아닌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의 성취기준 또는 학년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과목의 성취기준을 문항 정보표에 제시하고, 평가를 실시한다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학기초 계획한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성취기준을 살펴보지 않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제작하거나, 교사의 수업 내용만을 고려해 평가를 계획한다면 문항 정보표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서 5월에 수업할 것으로 계획된 성취기준이 4월 중순에 실시되는 평가의 문항 정보표에 제시된다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한 학기 안에서 학습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이를 문항 정보표에 제시하고 평가하였다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문항 정보표에 기록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문항 정보표를 작성할 때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운영계획을 살펴보고 한 학기 계획 내에 들어있는 성취기준을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3) 기타

(1) 문항의 변별도나 난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교육 요소를 활용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취기준 내에서 충분히 학습된 내용을 근거로 심화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평가의 변별도나 난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에 벗어난 선행교육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통합과학1, 2’ 과목의 평가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인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수준의 내용에서 다루는 그래프나 사례, 관계식 유도 등을 활용해 문항을 제작한다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통합과학2’ 과목의 성취기준 “[10통과2-01-04] 대표적인 산-염기 물질의 특징을 알고,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나타나는 중화 반응을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다.”를 평가할 때, 평가 문항의 난도를 높이고자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에서 다루는 몰 농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함.

(2)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서부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특정 단위, 특정 평가 방법에 치중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함

- **수행평가는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여야 합니다. 수행평가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 교수·학습 - 평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및 성취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과 교육과정 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단위 및 성취기준에 치중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단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아닌 사소한 개념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평가 시 일어날 수 있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다음과 같음.

- 성취기준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성취기준 : [10통과2-01-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평가내용 :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 누대, 대, 기에 해당하는 낱말을 빈칸에 채우세요.
- 성취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선행교육하면 안 됨

- 편성된 학교교육과정(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포함)을 앞서는,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의 수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선행교육을 2028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학교교육과정(공동교육과정 포함)에 편성·운영되어 있지 않은 교과에 대해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교과 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음

- 현재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더라도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의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되는 선택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합니다.

사례 과학계열 진로 선택 과목인 ‘고급 생명과학’이 학교 교육과정의 3학년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선택 과목인 ‘생명과학’을 이수한 고등학교 3학년의 소수 학생이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고급 생명과학’ 과목의 개설을 요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음.

(3) 방과후학교에서 과학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유의해야 함

- 방과후학교 과학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수 경로 상 후속 과목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방과후학교에서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학’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1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통합과학2’를 수강하는 1학년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무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수강생 중 가장 낮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함.



(4) 교내 과학대회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면 안 됨

- 과학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과학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하며, 학기 단위로 편성된 교과 교육과정(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학년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내 대회에서는 최저 학년 학생의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맞추어 문항을 출제해야 합니다.

사례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과학대회에서 2학년에 편성·운영하는 과목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1학년 학생에게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Q&A

Q. 과학 관련 연구학교나 과학중점학교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하는 교과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포함한 교재나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하는 교과목의 성취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편성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Q. ‘물리학’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목차의 순서를 바꾸어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 과목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를 반영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교과목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Q.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생물의 유전’ 수업 시간에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한 ‘생명과학’의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수 과정 상 선행 과목의 내용을 후속 과목 수업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업은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과목의 해당 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을 넘어서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생물의 유전’ 과목의 내용 요소인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한 ‘생명과학’ 과목의 생식 세포의 형성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교과 내용의 일부를 지도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2학년에 편성된 ‘생명과학’ 과목 시간에 3학년에 편성된 ‘생물의 유전’ 과목의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Q.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화학 반응의 세계’ 과목 수업 4시간 중 1시간을 1학년 공통 과목으로 편성·운영한 ‘통합과학1’ 또는 ‘통합과학2’ 수업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한 교과목과 실제 운영하는 교과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과 실제 운영 교과목을 달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Q.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아닌 EBS 교재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EBS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라고 해서 그대로 수업에서 가르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EBS 교재 내용이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의 것이라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교재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변경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BS 교재의 문항을 전제하여 출제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Q.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학력평가 등의 문항을 이용해 출제하다 보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교과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

A.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교과이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학력평가 등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이용해 평가하려고 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Q.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생명과학’ 과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세포와 물질대사’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해도 되나요?

A. 지도한 교과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평가는 교과목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1학년 공동 과목인 ‘통합과학1’에서 “[10통과1-02-05]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규산염 광물, 단백질과 핵산의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중합되어 형성되는 단백질의 화학적 구조에 대해 평가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합과학1’에서 성취기준은 “[10통과1-02-05]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규산염 광물, 단백질과 핵산의 예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구조를 가진 기본 단위체들의 다양한 배열을 통해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을 갖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음을 단백질과 핵산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기본 단위체를 비롯한 단백질과 핵산의 화학적 구조는 진로 선택 과목인 ‘세포와 물질대사’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이를 ‘통합과학1’에서 평가하는 것은 ‘통합과학1’의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Q. 2학년 1학기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한 ‘화학’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2학년 2학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화학 반응의 세계’ 과목의 지필 평가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충실한 교과목 이수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을 미리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학교 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전 학기 또는 이전 학년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평가 문항을 제작하다 보니까 교과목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항에는 이상이 없는데, 출제가 가능한가요?

A. 평가 문항은 학생이 배운 교과목의 교육과정(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학기 및 학년에서 배울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AP, UP 과정으로 일반물리학 과목을 개설하고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AP, U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2025년 4월 초판 발행

발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전화 | 043-931-0114

팩스 | 043-931-0884

디자인 | 화신문화 (043-882-5583)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